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UCI]I804:24011-200000266618

2018년 2월
교육학석사(한국어교육)학위 연구보고서

미디어를 활용한 한국어 듣기 교육 방법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전공

박 성 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미디어를 활용한 한국어 듣기 교육 방법 연구

A Study on Korean listening education method through media

2018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전공

박 성 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미디어를 활용한 한국어 듣기 교육 방법 연구

지도교수 이 재 기

이 연구보고서를 교육학석사(한국어교육)학위 청구 연구보고서로 제출함.

2017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전공

박 성 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박성례의 교육학 석사학위
연구보고서로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석 주 연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재 기 인

2017년 12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선행 연구 검토 ····· 2
3. 연구 방법 ····· 3

Ⅱ. 듣기 교육에 대한 이론적 고찰 ····· 4
1.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듣기 교육 ····· 4
1) 듣기의 정의와 중요성 ····· 4
2) 한국어 듣기 교육(지도)의 원리 ····· 5
3) 듣기 활동의 원리 ····· 7
4) 듣기 자료의 구성 원리 ····· 9
5) 듣기 내용의 구성 원리 ····· 10
2. 듣기 활동의 실제적 유형 ····· 10
1) 듣기 전 활동 유형 ····· 11
2) 듣기 중 활동 유형 ····· 13
3) 듣기 후 활동 유형 ····· 14
3. 드라마와 언어 교육 ····· 15
1) 언어교육에서의 미디어의 활용 ····· 15
2) 언어교육 자료로서의 드라마의 교육적 가치 ····· 16
3) 드라마의 선정 기준 ····· 1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Ⅲ. 드라마를 활용한 듣기 수업 지도안 작성 ····· 18
1. 드라마의 소개 및 선정 이유 ····· 18
1) 드라마의 소개 ····· 18
2) 선정 이유 ····· 20
2. 드라마를 활용한 듣기 수업 지도안 ····· 21
1) 전개 방식 ····· 21
2) 수업 지도안 ····· 23

Ⅳ. 결론 ····· 32

참고문헌 ····· 3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연구자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며 근 10년 이상 영어를 제2외국어로 공부해 오며 여전히 듣기에 자신이 없는 연구자를 보곤 한다. 읽기와 쓰기는 시험에 익숙한 터라 어느정도 하겠고, 말하기는 그래도 생활영어 정도는 한마디씩 하겠는데 듣기는 자신이 없다. 그래서 대화에 두려움이 있다. 이런 자신을 보며,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배우는 학생들에게 있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한국어를 가르치려면 무엇보다 듣기와 말하기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듣기가 선행되어야 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어떻게 듣기를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할 것인가? 현대는 미디어의 시대다. 미디어란 매체·수단이란 뜻으로, 불특정 대중에게 공적·간접적·일방적으로 많은 사회정보와 사상을 전달하는 신문·TV·라디오·영화·잡지 등이 대표적이다. 미디어는 분야에 따라 방송 미디어(방송 매체), 디지털 미디어(전자 매체), 매스 미디어(대중 매체,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 멀티미디어(복합 매체, 영상·음악·텍스트 등의 조합), 뉴미디어(컴퓨터 및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의 매체와는 달리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매체 기술), 출판 미디어(출판 매체), 기록 미디어(기록 매체), 미디어(컴퓨터 분야, 디지털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매체, 즉 통신 및 전송을 위한 물리적 매체를 의미함), 소셜 미디어(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퍼지고 전달되는 미디어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매개로 하는 정보 및 의견의 교환을 나타냄)로 나뉜다.[1] 즉, 한국어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는 출판물뿐만 아니라 뉴스, 영화, 드라마, U-Tube, SNS, 카카오톡 등 다양하다.

연구자는 미디어 특히 드라마에서 한국어 듣기의 해답을 찾고자 한다. 한국의 문화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것이 드라마이고, 드라마는 소설, 수필 등의 문학 작품에 비해 외국인이 한국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학습자료이며, 언어적인 요소 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요소까지 폭넓게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면 다음 회차 방송을 기다리며 즐거워하고 그 드라마가 끝나면 그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줄줄이 친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재미있는 드라마는 몰입도가 높다. 영화 또한 마찬가지다. 그래서 몰아서 드라마를 한번에 보기도 하고, 한번 본 프로를 되풀이하여 보면서도 즐거워하고 또한 그 등장인물의 대화를 따라하거나

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847711&cid=40942&categoryId=31751 (네이버 두산백과 미디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패러디하기까지 한다. 만사제처두고 드라마가 방영되는 시간에 TV 앞에 앉는 것처럼 '한국어 듣기 수업' 시간을 드라마 보는 시간처럼 기다리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드라마'를 활용하여 한국어 듣기 수업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 보고서의 목적이다. 연구자처럼 제2외국어 듣기를 두려워하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일단 한국어 듣기에 대해 부담없이 편안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가장 흥미로워하는 드라마를 통해 생생한 현장의 듣기를, 재미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2. 선행 연구 검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오래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영화나 TV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199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졌다(한경화2011:4). 한경화(2011)는 선행 연구를 검토하면서, 영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에 대해 첫째,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는 연구와, 둘째, 문화교육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 셋째, 듣기 교육 중심의 접근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자는 이 세 가지 유형의 연구 접근 중에서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 중 최근의 논문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한경화(2011)는 100여 시간을 학습한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영상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듣기수업 모형을 제안하였다. 통제집단은 「아름다운 한국어」 오디오 CD로 학습하고, 실험집단은 영상매체인 <Only You>(TV 드라마) DVD로 듣기 학습을 시킨 결과, TOPIK 듣기 평가 결과로 듣기 능력 향상도를 측정하였을 때, 두 집단 모두 듣기 능력이 향상되었으나 영상매체인 <Only You> DVD로 학습한 실험집단의 듣기 성적이 더욱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실험 전 설문조사에서도 대다수의 학생들이 영화나 TV 드라마와 같은 영상매체를 활용하는 수업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지혜(2009)는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초·중·고급을 아울러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적용 가능한 한국어 듣기 교육 방법과 그 효용성을 밝히고 실제 교실에서 적용 가능한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먼저 영화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영화 <아는 여자>, <미녀는 괴로워>로 듣기 교육과정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수업 실시 전후 평가에서 수업 후 듣기 성적이 상승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김윤선(2010)은, 중급학습자를 대상으로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해 2009년 KBS2에서 방영한 <결혼 못하는 남자>라는 드라마를 활용하여 6가지의 듣기 수업 활동(전체 받아쓰기, 부분 받아쓰기, 소리만 듣고 내용 추측하기, 듣고 틀린 내용 찾아 수정하기, 시청 후 질문에 O·X로 대답하기, 소리만 듣고 뒤섞인 장면 순서대로 나열하기)을 제시하고 실험 수업에 적용하였다. 실험 수업의 결과를 위해 수업 전후 설문과 면접을 통해 듣기 능력 향상의 변화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드라마를 활용한 실험 후 한국어 학습의 흥미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드라마를 활용한 수업은 한국어의 4가지 영역 중에서 듣기 다음으로 말하기 영역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듣기 활동 중 학습자들은 소리만 듣고 뒤섞인 장면 순서대로 나열하기 활동과 교사들은 듣고 틀린 부분 찾아 수정하기 활동을 선호하였고, 학습자들과 교사 모두 비선호 활동으로 전체 받아쓰기를 응답하였다. 넷째, 학습자들은 듣기와 말하기 활동을 수행할 때 짝활동이나 모둠활동의 방식으로 상호간 협력하여 수행하는 활동이 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다섯째, 드라마를 활용한 수업을 1주일에 1회로 하였을 때 효과적인 드라마를 활용한 수업 시간은 하루에 2시간 이하이고, 드라마 시청 시간은 중요부분과 활동에 사용할 장면을 발췌, 편집하여 총 30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학습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여섯째, 한국어 교사들은 드라마를 활용한 수업에 대해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많은 교사들이 편집기술과 멀티미디어 기기 작동에 능숙하지 않아 어렵다고 하여 드라마를 활용한 수업의 활성화를 위해 편집 기술과 멀티미디어 기기 작동에 대한 교사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평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못하고 설문으로 마친 것이 아쉬웠으나 드라마 활용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과 멀티미디어 기기 조작 능력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어 시사점이 있었다.

박명화(2010)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듣기 교육의 중요성 및 듣기-말하기 영역에서의 드라마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 말한 후 드라마를 듣기 및 말하기 수업의 각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2010년 KBS에서 방영한 드라마 스페셜의 단막극 <끝내주는 커피>를 선정하여 듣기 및 말하기의 구체적인 수업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지도안은 실제 수업에서 활용하지 않아 교육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아쉬웠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디어 특히 영화와 TV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듣기 교육 방안은 실제적인 듣기 능력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며 학생들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연구 방법

먼저 여러 참고문헌과 논문을 통하여 듣기 교육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즉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듣기 교육에서 듣기의 정의와 중요성, 듣기 교육의 원리, 듣기 활동의 원리, 듣기 자료의 구성 원리, 듣기 내용의 구성 원리, 듣기 활동의 실제적 유형을 살펴보고, 언어 교육에서의 미디어의 활용과 드라마의 교육적 가치, 드라마 선정 기준도 제시하겠다. 이후,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듣기 수업 활동 및 지도안을 통하여 실제 한국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듣기 수업에서 드라마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드라마를 활용한 듣기 수업 지도안을 통하여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

Ⅱ. 듣기 교육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듣기 교육

1) 듣기의 정의와 중요성

듣기는 '듣는 이(청자)가 말하는 이(화자)로부터 음성 언어를 매개로 하여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해하여 처리하는 과정'을 말한다. 외국어 교육에서 듣기는 1970년대 후반 이후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1960년대의 직접 언어 교수법이나 청각 구두식 교수법에서는 말하기에 중점을 두어, 듣기를 말하기 학습을 위한 수동적, 도구적, 보조적 기술로 인식하였으나 1970년대 후반 Asher(1977)의 전신 반응 교수법[2]과 Krashen & Terrell(1983)의 자연적 교수법[3]에서 듣기를 중요시하면서 본격적인 듣기 교육이 시작되었다. 최근에 이루어지는 듣기의 연구는 대부분 의사소통 접근법에 기반하고 있는데,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은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강조하는 교수법이다. 의사소통에서 듣기와 말하기는 필수적인데 제대로 듣지 않고는 올바르게 말할 수 없기에 '듣기 능력'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하겠다.

듣기가 중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4], 첫째 듣기는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빈도의 비중이 높다. Morley(1994:82)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듣는 활동에 말하기의 2배, 읽기의 4배, 그리고 쓰기의 5배만큼 시간을 할애한다고 하였다. 듣기가 잘 안 되면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임을 이 수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외국어 교육에

2) 전신 반응법은 듣기 기능이 본격적으로 인정된 교수법으로 구두로 지시된 내용을 학생이 듣고 이를 실제로 수행하게 하는 교수법이다. 즉 학습자가 듣고, 명령을 따라하고, 행동을 통하여 자신들이 이해할 것을 표현하게 된다. (강현화 외, 한국어 이해 교육론, 2009 : 19 ~ 22)

3) 자연 교수법은 제2언어도 습득되는 것으로 보아 자연적인 습득 순서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양의 구두 입력을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표현보다는 이해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게 한다. 학습자에게는 이해 가능한 입력을 제시해야 하며, 이해를 돕는 것은 무엇이든지 중요하다고 보았다. (강현화 외, 한국어 이해 교육론, 2009 : 22 ~ 25)

4) 양명희 외(2011 : 14~15)를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서 듣기는 학습자에게 목표어의 입력물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듣기는 말하기의 선행 단계이다. 특히 언어 교실에서 학습자가 입력물을 적정 수준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학습이 시작될 수 없다. 셋째, 듣기는 녹음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들은 내용이 보존되지 않는다. 실제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듣기를 할 때 나중에 듣거나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듣거나 건너뛰거나 반복하거나 순서를 바꾸어 듣거나 할 수 없다. 음성 언어가 갖는 순간적, 일회적 특성 때문에 듣기 능력 신장이 중요한 것이다. 넷째, 듣기는 다른 기능으로의 전이가 빠르다. Lundeteen(1971)은 듣기의 전이 능력이 가장 크다고 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듣기를 통해 말하기를 모방하여 말하기 연습이 가능하고, 듣기를 하며 쓰기를 하게 되면 듣기에 주의 집중을 하게 될 뿐 아니라 다양한 표현과 형태를 받아 적음으로써 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또 듣기를 통해 형성된 이해 능력은 이해 영역인 읽기에도 도움이 된다. 이처럼 듣기는 언어 생활에서 기본이 되며, 의사소통에서 매우 중요하다.

2) 한국어 듣기 교육(지도)의 원리

의사소통적 듣기 교육의 일반적 원리에 대해 이해영(1999:244~246)은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듣기 능력 배양을 위한 듣기 교육의 첫 번째 원리는 학습자를 동기화시키라는 것이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듣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학습자에게 인지시키는 것은 학습의 성패를 좌우한다.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의 또다른 이론적 기초는 학습자 중심의 개념이다. 학습자 중심의 교과 과정에 따른 수업에서 사용되는 모든 것들은 학습자의 필요와 흥미를 반영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야만 학습자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역할을 하게 되어 학습의 효과가 높아질 것이다. 이와 아울러, 외국어 듣기 능력을 향상시켜 줄 듣기 전략을 학습자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시켜 교사없는 상황에서도 듣기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리는 외국어 학습에서의 듣기 교육은 모국어 환경에서 듣기 활동을 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들을 때는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듣게 되며,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인 형태로 들은 것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 또한, 우리가 모국어로 듣기를 수행하게 되는 현장은 주변 소음과 참여자간의 순서없이 끼어 듦, 중복, 음성적, 문자적, 통사적, 화용적 축약, 머뭇거림, 휴지, 횡설수설하는 말, 비문법적 요소, 방언, 관용어, 은어, 사회문화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말, 발화속도, 강세, 억양, 담화의 상호작용적 요소들이 혼재한다. 외국어를 들을 때 이러한 요소들은 부가 정보로서 기능하기보다는 듣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그러나 외국어 학습에서의 듣기는 이 모든 것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장과의 괴리는 학습자가 교실 현장에서 배운 것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고자 하는 순간 당혹감과 혼란스러움을 안겨 줄 것이다. 따라서 실생활의 적용성을 높이고 실제 담화 현장에서의 의사소통능력 발휘를 가능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쌍방적이고 소통적 담화, 잉여 요소나 주변 정보의 혼재 등 담화적 요소를 포함시켜 구성된 담화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모국어 담화 상황에서의 담화 참여 태도 또한 외국어 학습에 응용될 수 있다. 일상의 담화 상황에서 우리는 청자의 이해 정도를 주의깊게 관찰하면서 듣기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를 외국어 학습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청자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것은 담화 구성에 있어서 다음 발화를 하는 데 기여하지만 교실 현장에서 교육적으로 구성되면, 청자가 듣기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는가를 확인하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실 현장에서는 듣기 과제를 수행한 후에는 과제 수행 여부를 확인할 만한 다양한 확인 기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실제 생활에서의 가제 수행 능력을 배양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제 중심적인 듣기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목적은 듣기 교육이 단순한 듣기 연습을 넘어서 좀더 의사소통적인 진행이 되어 실제 생활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 듣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과제는 실생활 과제와 그 실생활 과제를 잘 수행하도록 돕는 교육적 과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가령, 실제적인 듣기 자료를 듣고 목적을 가지고 어떤 정보를 구하거나 그것을 토대로 다음 행동을 취하는 등 우리가 모국어로 듣기를 수행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하게 한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면 학습자들은 실제의 담화 상황에 놓였을 때 어디선가 경험한 듯한 익숙함이나 친근감을 얻어 무난히 듣기를 수행할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받게 될 것이다. 후자는 이러한 전자의 과제 수행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도록 돕는 일련의 연습과정이다.”

이에 대해, 듣기 교육의 기본 원리에 대하여 박명실(2010:8~9)은 논문에서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듣기 자료는 학습자의 흥미를 이끌 수 있으며 실제적이어야 한다. 듣기 자료를 선정할 때 학습자의 요구와 흥미를 충분히 고려하여 학습자가 듣기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듣기 자료는 형식적으로 자연스럽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그리고 모국어 화자들이 사용하는 담화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자연스러운 발화 자료로 고안되어야 하며 형태적으로 비언어적이고 비문법적인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실제적인 언어생활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문어와 대립되는 구어의 언어사용, 발음, 억양, 속도의 측면도 잘 드러내야 한다.

둘째, 듣기 교육 내용은 학습자가 접하게 될 다양한 맥락을 고려해야 하고 등급별 듣기 교육에 맞아야 한다.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이 높아질수록 접하게 될 듣기의 유형은 더욱 다양해진다. 그러므로 학습자가 접하게 될 다양한 유형에 따라 듣기 교육 내용을 적절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시기에 수행하여 학습자들이 성공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듣기 교육 내용은 각 등급별 교육 목표에 의하여 문법적, 사회언어학적, 담화적, 전략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셋째, 듣기 활동은 자료 유형에 맞는 실제적인 활동이어야 하고 모국어 환경에서의 듣기 활동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듣기 활동은 자료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료가 뉴스인 경우 과제 활동은 일정한 정보를 파악하는 내용 및 상황 파악 그리고 등장인물 간의 관계 등에 중점을 둘 수 있다. 실생활에서 모국어로 듣기를 수행하게 되는 현장은 주변 소음과 참여자 간의 순서없이 끼어드는 행위, 머뭇거림, 휴지 등 요수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듣기를 어렵게 만든다. 하지만 교실 현장에서 진행되는 듣기 활동은 이러한 요소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배운 것을 실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실생활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요소들을 포함한 상황에서 듣기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넷째, 학습자가 듣기 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듣기 교육은 학습자가 접하게 될 여러 듣기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습자들이 듣기 전에 자신이 알고 싶은 정보를 먼저 스스로 질문을 생성하고, 그 질문에 집중해서 정보를 듣게 하는 전략 등을 가르쳐야 한다.

다섯째, 다른 언어 능력의 배양과 연계시켜 지도해야 한다. 듣기 교육은 한국어로 발화된 내용을 듣고 단순히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알맞은 반응까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다. 즉 듣기 교육을 말하기, 쓰기 등 생산 능력과 통합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3) 듣기 활동의 원리[5]

그렇다면 의사소통 능력을 위한 듣기 활동은 어떠한 기법으로 이루어져야 할까? 이에 대해 Brown(2006)은 듣기 활동이 갖추어야 할 6가지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듣기 능력이 개발되는 기법이다. 최근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기능 통합적인 교육 과정이 운영되면서 듣기 개별 기능에 초점을 맞춘 지도는 교재 면에서나 교수법 면에서 모두 빈약한 현실이고 이는 통합 교과에서 개별 기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학습자들이 다양하게 언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인식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효과적인 듣기 기법은 학습자 스스로 깨우쳐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략 개발을 위한 활동을 통해서 지도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따라서 듣기 능

5) 강현화 외(2009:46~48), 한국어 이해 교육론, 형설출판사, 요약 정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력 개발을 위해서는 듣기 개별 기능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동기화 기법이다. 학습자의 개인적 관심과 학습 목적에 맞는 듣기 활동이 필요하다. 듣기는 듣는 사람의 배경정보(스키마)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업 설계 시에 학습자의 경험, 학습 목적, 능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학습자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듣기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이러어지게 된다.

셋째, 실제성이다. 학습자가 교실에서 하는 듣기 활동이 일상에서 실제로 만날 가능성이 높은 활동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위적이고 조작된 언어 자료가 아니라 실제적 언어로 실제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듣기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학습자가 현재의 수업활동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부딪칠 의사소통 환경과의 관련성을 깨닫고 학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넷째, 학습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듣기의 이해 과정은 행동으로 나오기 전에는 제대로 이해가 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습자의 반응을 통해 이해의 정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듣기 활동이 설계되어야 한다. Lund(1990)는 학습자의 듣기를 확인할 수 있는 반응 활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행동하기 : 학습자가 지시에 따라 신체적으로 반응하기
② 선택하기 : 학습자가 주어진 그림이나 사물, 텍스트 가운데서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기
③ 전이하기 : 학습자가 들은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기
④ 대답하기 : 학습자가 메시지에 관한 질문에 답하기
⑤ 요약하기 : 학습자가 강의를 듣고 요약하거나 글로 적게 하기
⑥ 확장하기 : 학습자가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부분을 완성하기
⑦ 되풀이하기 : 학습자가 들은 내용을 모국어로 번역하거나 그대로 반복하여 말하기
⑧ 모델링하기 : 학습자가 예시된 주문을 듣고 따라서 주문하기
⑨ 대화하기 : 학습자가 정보 처리가 일어나는 대화에 참여하기

다섯째, 듣기 전략이 개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언어 학습자들은 듣기에 대한 요령에 어두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언어 교사는 학습자들이 듣기 활동을 통해 듣기 책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Brown(2006)은 학습자들이 알아야 할 전략의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핵심어 찾기
② 의미해석에 도움을 주는 비언어적 단서 찾기
③ 담화 매락을 통해 화자의 의도 예측하기
④ 입력 정보와 학습자의 배경 정보 연계하기
⑤ 의미 추측하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⑥ 설명 요구하기
⑦ 전체적인 요지 찾으면서 듣기

학습자에게 듣기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전략 능력이 향상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로 언어 교사가 듣기 활동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여섯째, 상향식 기법과 하향식 기법이 모두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인간이 언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은 크게 상향식 과정과 하향식 과정으로 분류된다. 상향식 과정에서는 소리에서 단어, 문법 관계, 어휘의 사전적 의미 등을 거쳐 궁극적으로 메시지를 이해하고, 하향식 과정에서는 정보를 듣는 사람이 사전에 가지고 있는 배경 정보(스키마)를 이용하여 듣기 자료의 내용을 추론하고 이해한다. 상향식 교수 기법은 전형적으로 여러 낱말이나 문장을 듣고 빈칸을 채워 넣거나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언어 요소를 찾는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에 하향식 교수 기법은 학습자의 사전 지식 활성화와 의미 추론, 내용의 전체적 이해, 문자적 의미와 의도된 의미를 구별하기, 듣고 주제 파악하기 등의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대부분 듣기 이해의 처리 과정이 역동적인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공적인 듣기를 위해서는 두 가지의 처리 방식이 모두 필요하다. 그러므로 듣기 지도는 상향식과 하향식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법이 개발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듣기 자료의 구성 원리[6)]

듣기 자료는,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듣기 활동에 참여하여 듣기 경험을 극대화함으로써 실제적인 의사 소통 과제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듣기 자료는 자료의 전이성과 적용성 그리고 과제 중심적 활동이라는 세 가지 원칙이 요구된다.

첫째, 전이성이란 듣기 지도의 원리 중 동기화 기법과 관련된 것이다. 학습자가 듣기 활동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생활 및 관심 영역과 일치하는 내용의 자료여야 한다는 것이다. 교수자는 자료 선정에 있어서 학습자의 동기가 부여되는 정보가 무엇이지 관심을 기울여서, 학습자의 경험, 학습 목적, 능력이 고려되는 듣기 활동 자료를 통해 학습자의 선험적 지식이 활용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둘째, 적용성이란 듣기 지도 원리의 실제성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듣기 자료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다. 즉 교실 수업에서 경험한 자료가 실제 생활에 쉽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하고 실제 상황으로 전이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위적이고 조작된 자료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텍스트를 수업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학습자가 현재의 수업 활동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부딪칠 의사소통 환경과의 관

6) 강현화 외(2009:58~59), 한국어 이해 교육론, 형설출판사, 요약 정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련성을 깨닫고 학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자료가 실제의 속도로 제시되는 것이 실생활로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학습자들이 듣기를 다른 언어 영역에 비해 어렵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는 속도를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실제 속도 자료에 노출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과제 중심적이란 듣기 자료가 사용되는 방식에 대한 특성을 이르는 것이다. 즉 학습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기법으로 듣기 내용 정보를 이용하는 과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듣기 자료는 다음과 같이 듣고 행동하는 의사소통 활동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다.[7]

① 게임의 명령과 같은 듣고 행동하기
② 형태를 구성하거나 지도를 그리는 것과 같은 듣고 기능을 수행하기
③ 듣고 수수께끼나 지적 논리적 퍼즐과 같은 문제 해결하기
④ 듣고 전화 메시지 받아쓰기와 같은 전사하기
⑤ 듣고 정보를 요약하기
⑥ 서로 듣고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의미를 결정하기

5) 듣기 내용의 구성 원리[8]

듣기 내용은 첫째, 인지적 관점으로 듣기 자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이해한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담화적 관점으로 담화의 특성상 전달하는 담화인지, 설득하는 담화인지, 혹은 친교적인 담화인지 등의 담화의 정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내용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담화의 특성에 따라 말하는 이의 의도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된다.

셋째, 소통적 관점으로 말하는 이의 의도가 파악되는 단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하며 문맥을 꿰뚫어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2. 듣기 활동의 실제적 유형[9]

듣기 활동이란 듣는 동안의 활동이나 듣고 바로 응답하는 활동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듣기 행위가 궁극적으로 의사소통에 기여하도록 하고, 수업이 학습자의 듣기

7) 정용주(1996 : 133).
8) 강현화 외(2009:59~60), 요약 정리
9) 강현화 외(2009:78~106), 한국어 이해 교육론, 형설출판사, 요약 정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전략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과정으로서의 듣기가 강조된다. 그래서 듣기 활동은 Underwood(1989 : 30~78)의 듣기 전 활동과 듣기 활동, 그리고 듣기 후 활동으로 나누어진다.

듣기 전 활동은 본 듣기 활동을 진작하기 위해 듣기 전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활동이다. 이 활동 유형에는 학습자의 배경 지식을 이끌어 내는 활동이나 어휘, 문법 같은 언어적 정보를 미리 학습하는 유형이 있다.

듣기 활동은 어떤 내용을 들은 직후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듣기 이해 활동이다. 듣기 활동에서의 유형은 대부분 들은 내용에 대한 질문 문항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듣기 후 활동은 듣기 이해 활동이 끝난 후에 들은 내용을 응용하여 새로운 내용을 산출하는 활동이나 듣기 활동을 통해 입력된 언어 정보를 연습 또는 보완하는 활동이다. 들은 후 말하기, 읽기, 쓰기로 이어진다.

1) 듣기 전 활동 유형

듣기 전 활동은 들을 내용의 배경이나 맥락을 만들어 줌으로써 학습자가 들을 내용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을 예측하면서 듣는 것과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듣는 것은 이해도에서 큰 차이가 난다. 듣기 전 활동은 맥락을 충분히 제공하여 듣기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외국어 학습자들이 보다 더 쉽게,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듣기 전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학습자들은 듣기 활동에 자신감을 갖게 된다. 또 효과적인 듣기 전 활동은 수업을 역동적으로 만든다. 학습자들이 자신이 가진 스키마를 활성화시켜 수업에 참여할 때 듣기 수업은 수용만으로 끝나지 않는 생산적인 수업이 될 수 있다.

듣기 전 활동은 다루는 정보의 양상에 따라 배경 지식 활성화 활동과 지식 강화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배경 지식 활성과 활동은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끌어 내는 활동이고, 지식 강화 활동은 교사에 의해 준비된 정보를 이용하는 활동이다.

배경 지식 활성화 활동은 학습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끌어내어 이를 다른 학습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자신이 가진 것을 명확히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수용하여 주제에 대한 지식을 넓히게 되면 학습자는 듣기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배경 지식 활성화 활동에는, 교사 질문에 대답하기, 시각자료(그림, 사진, 실물) 이용하기, 관련 어휘 예측하기 등이 있다.

① 교사의 질문에 대답하기란 예를 들어 '가방 사기'와 관련된 내용을 들을 거라면 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사는 학생들에게 '가방을 사고 싶어요. 어디에 가요?', '어떤 가방을 사고 싶어요?'와 같은 질문을 해서 들을 내용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이때 교사는 들을 내용과 너무 관계가 먼 질문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즉 '가방 사기'와 관련된 내용인데 '어느 시장을 좋아하세요?'라고 묻게 되면 '어떤 가방을 사고 싶어요?'까지 접근하는데 다시 여러 번의 질문을 해야 하므로 듣기 전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② 시각 자료 이용하기란 교사가 학습자에게 질문을 할 때 보조 자료로 그림이나, 사진, 도표, 혹은 실물 등의 시각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 자료는 언어 자료로 이루어지는 수업에 변화와 리듬을 주고 학습자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 더 본질적으로는 들을 내용에 대해 정확한 방향으로 예측할 수 있게 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실마리를 제공하여 학습자의 두뇌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시각 자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림이나 사진을 이용할 때는 그것이 학습 내용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 좋으며, 시각 자료가 추상적이라면 내용 예측이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시각 자료는 명시적이어야 한다.

③ 관련 어휘 예측하기는 들을 내용에 나올 어휘를 예측해 보는 활동이다. 어떤 장소를 묘사하는 듣기라면 그 장소에서 볼 수 있는 도구나 시설물과 관련된 단어를 미리 예측해 보고, 어떤 도구에 관한 듣기라면 그 도구의 재료나 크기, 용도 등과 관련된 단어를 미리 예측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습자는 들을 내용에 대한 선행 지식을 갖게 되어 듣기가 조금 불완전하더라도 내용을 연결시킬 수 있게 된다. 예측을 위한 실마리로는 그림 자료나 제목 혹은 교사의 질문이 활용된다. 예를 들어 김치에 대한 소개 글을 듣게 될 때, 듣기 전 활동에서 교사는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다. "다음은 김치의 역사와 다양한 김치 맛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단어들이 나올까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학생들은 "삼국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혹은 "재료, 싱겁다, 짜다, 맵다" 등의 어휘를 예측할 수 있다.

정보 강화 활동은 들을 내용 속에 나오는 어휘, 문화, 사회적 정보를 미리 학습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자는 글의 내용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정보 강화 활동에는 어휘(표현) 학습하기, 화자 정보 파악하기, 관련 자료 읽기, 빈칸 미리 채워보기, 교사의 이야기 듣기 등이 있다.

① 어휘(표현) 학습하기란 듣기 전에 어휘, 표현을 제시하여 공부한 후 듣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학습자들에게 생소한 어휘나 표현이 많으면 학습자는 듣는 내용에 대한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어 자기가 들을 수 있는 것마저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어려운 어휘나 표현이 많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목록을 제시할 때 일반적으로 텍스트 형식으로 제시되지만 그림으로 제시할 수도 있고, 그림과 텍스트를 병용할 수도 있다. 연세대 한국어학당의 「한달완성 한국어 중급 I 듣기」(2008)에는 모든 단원의 듣기 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활동에 어휘가 제시된다. 제시 형식은 단어와 풀이를 연결하기, 단어와 그림을 연결하기, 단어를 그룹화하기, 문장에 단어 넣기 등 다양한 형식을 사용한다.

② 화자 정보 파악하기란 듣기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학습자의 듣기가 두드러지게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교사는 반드시 말하는 사람의 정보를 주어야만 이해가 가능한 상황도 있다. 예를 들어, 홈쇼핑에서 물건을 소개하는 사람이라는 화장의 정보를 학생들이 모르고 있다면 '제품 소개', '30분 만에 품절', '전화를 주다'와 같은 표현이 왜 사용되는지 알기 어렵다.

③ 빈칸 미리 채워보기는, 듣고 빈칸에 쓰는 듣기 활동이 있을 때 들을 정보를 맥락에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에 필요하다. 교사는 학생들의 듣기 전략을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들어갈 말을 미리 추측할 기회를 준다. 실제로 많은 경우 듣지 않고 맥락만으로도 정확한 혹은 유사한 말을 찾아 쓸 수 있다. 이 활동은 특히 듣고 쓸 정보가 많을 때 유용하다.

④ 관련 자료 읽기는 학생들에게 들을 내용에 대한 사전 정보를 주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으로 유사한 자료를 읽기로 제시하여 읽어본 후 내용을 듣는 것이다. 이 방법은 사전 학습으로 들을 내용의 이해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문어와 구어의 문체, 혹은 표현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어서 좋다. 뉴스 듣기 전 활동으로 유사한 내용의 신문 읽기를 선행하는 방법, 요리 방송의 듣기 전 활동으로 요리법 읽기, 여행지 소개 듣기 전 활동으로 안내 책자 읽기 등 다양한 관련 자료를 실생활에서 많이 찾을 수 있다.

⑤ 교사의 이야기 듣기는 들을 내용의 난이도가 학생들 수준에 비해 높을 때, 실제 자료에 이해가 모호한 부분이 있을 때, 학생들에게 듣기 전에 정보를 미리 주고 싶은데 마땅한 자료가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매스컵이나 매체의 듣기를 교사 말 듣기보다 어려워하므로 교사의 분명한 발음으로 미리 듣거나 간략한 설명으로 내용을 듣게 된다면 내용 이해가 훨씬 빨라진다. 교사는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더 구체화해서 말하거나 일부만을 말할 수도 있다. 방송 매체에서 구술된 설화를 교사가 들려준다든지, 사건 사고의 개요를 들려준다든지 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2) 듣기 중 활동 유형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듣기 활동은 실제로 어떤 내용을 들은 직후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듣기의 성격상 학습자가 가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들은 결과이다. 하지만 이 듣기 활동 과제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듣기 활동에 집중하고 유용한 듣기 전략을 사용하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듣기의 목적을 분명하게 부여함으로써 의사소통적이고 실제적인 듣기로 유도할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일상 생활에서 모국어 화자가 다른 사람의 발화를 듣는다든지, 라디오를 들을 때 모든 내용을 다 듣는 것이 아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면서 듣게 된다. 듣기 활동 과제는 학습자가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듣는 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듣기의 능숙함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듣기 활동의 유형은 제시된 과제에 학습자가 들은 직후 무엇을 표현하느냐(표현 내용), 어떻게 표현하느냐(표현 방법), 그리고 그 과제 자료가 무엇이냐(자료의 종류)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표현 내용에는 들은 내용, 중심 내용, 추리된 내용, 청자의 반응, 문제 해결 방안 등이 있을 수 있고, 표현 방법에는 OX하기, 고르기, 나열하기, 표시하기, 쓰기, 그리기 등이 있을 수 있고, 자료의 종류에는 텍스트, 그림, 도표 등이 있을 수 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면 듣기 활동의 유형은 '들은 내용 OX하기, 들은 내용 고르기, 들은 내용 나열하기, 들은 내용 표시하기, 들은 내용 쓰기, 들은 내용 그리기, 중심 내용 파악하기(OX하기, 고르기, 쓰기), 추리하기(고르기, 쓰기), 반응하기, 문제 해결하기' 등으로 분류되고, 각 유형에 따라 텍스트, 그림, 도표 등의 자료가 제시될 수 있다.

3) 듣기 후 활동 유형

듣기 후 활동은 학습자의 언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들은 내용을 활용하여 또 다른 언어 훈련을 도모하는 것이다. 즉 들은 내용을 학습자의 희미한 기억 속으로 날려 버리지 않고 활용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듣기 후 활동의 목적이다.

듣기 후 활동은 그 성격에 따라 들은 내용을 학습하는 활동, 들은 내용을 비판, 적용하는 활동, 그리고 들은 내용을 확장하는 활동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들은 내용을 학습하는 활동에는 단어나 문법 학습하기와 요약하기가 있다. 단어나 문법 학습하기는 듣기 중에 출현한 중요한 단어나 문법을 정리하고 이를 내재화하는 활동이다. 보통 단어 학습하기가 많이 활용된다. 요약하기는 들은 내용을 다시 간단히 정리해보는 활동이다. 학습자 수준에 따라 요약 형식과 내용의 일부를 제시하고 일부만 학습자가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쓰기 과제가 많이 활용된다.

들은 내용을 비판, 적용하는 활동은 들은 내용에 대해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을 반영하여 반응하는 유형이다. 어떤 견해를 가진 담화를 들은 후 그것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하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활동에서는 들은 내용을 어떻게 수용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사전 경험이나 지식이 과제 활동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에는 논평하기, 토론하기, 문제 해결하기 등의 유형이 있다.

들은 내용과 관련된 확장 활동은 들은 내용이 학습 활동의 촉발제 역할을 하고 또 다른 활동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듣고 개인적인 경험으로 확장시켜 말하기, 역할극,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리고 들은 내용과 관련된 읽기 등이 포함된다.

3. 드라마와 언어 교육

1) 언어교육에서의 미디어의 활용[10)]

멀티미디어 매체란 CD-Rom이나 인터넷과 같이 컴퓨터의 화면을 이용하여 음성, 문자,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을 전달할 수 있는 복합적인 매체를 말한다. 최근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획기적인 발달로 언어 수업의 보조 학습 도구로 인터넷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언어 교육에서 멀티미디어 매체를 활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데, 특히 소리와 영상을 동시에 보고 들으면서 언어 기능을 학습할 수 있어 학습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는 데 유리하다. 또한 현실 생활과 유사한 상황의 장면을 통하여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실제 상황에서 언어를 배운다는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다.

멀티미디어 매체를 활용하면, 교실에서의 수업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커뮤니티나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다각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의사소통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교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학습 내용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찾을 수 있어 자료를 준비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과 수고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언어 수업에서의 멀티미디어 매체의 사용은 매우 유용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① 수업의 목적과 내용에 맞게 사용한다.
② 학습자들의 수준에 적합하게 사용한다.
③ 특별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매체여야 한다.
④ 유의미한 상호작용 활동을 하는 데 활용한다.
⑤ 문법적으로 올바른 한국어가 사용되는 동영상이나 자료 화면을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매체로는 PPT(파워포인트), CD-Rom,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자료들, 이메일, 온라인 게시판 등이다.

10) 우형식 외(2011:248~253) 요약 정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언어교육 자료로서의 드라마의 교육적 가치[11)]

첫째, 드라마는 당대 사회 환경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언어 상황을 제시하고 생생한 언어를 사용한다. 교실에서 교재를 통해서만 언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은 실제 언어 환경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구어적인 표현이나 문법적으로 생략된 표현 등을 이해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최근에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언어의 갱신 속도가 날로 빠르게 되었으며 신조어, 유행어 등이 담화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드라마를 이용한 언어 교육은 학습자들에게 실제적인 언어 사용을 접하는 기회를 주고 문법적인 면에서 문어와 다른 구어 텍스트를 제공함으로써 살아 있는 언어를 경험하게 한다. 또한 드라마를 통해 화자의 억양, 발화 속도, 감정에 따른 언어 사용의 차이까지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다.

둘째, 실제 언어 상황에서 몸짓,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들은 언어적 요소 못지않게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데, 드라마를 통해 화자가 발화할 때의 얼굴 표정, 몸짓, 자세 등 비언어적 요소들을 모두 관찰할 수 있어서 학습자가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못해도 필요한 정보들을 배울 수 있다.

셋째, 드라마에는 목표어 나라의 일상생활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 사회 문화를 비롯해서 풍습, 종교, 사회 제도 등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는 드라마를 통해 자연스럽게 목표어 문화를 접하게 된다. 그리하여 목표어 문화의 이해를 통해 그 문화에서 사용하는 언어도 함께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드라마는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고 학습에 대한 흥미와 집중을 유지할 수 있다. 드라마 속에 출연한 배우, 흥미진진한 이야기 전개, 화면과 어울리는 배경 음악 등도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지속시켜 수업에 집중하게 도와주기도 한다. 예를 들면 드라마를 시청하기 전에 학습자들에게 드라마의 배경 음악을 들려주면서 드라마의 장면 사진을 보여주는 방법을 통해 미리 내용을 상상하게 하여 수업 진행에 대한 기대가 생기게 한다.

다섯째, 문법적 능력에서 보면 드라마는 정확한 발음, 어휘의 의미 파악 및 사용, 자연스러운 억양 학습에 유용한 학습 자료가 된다. 즉 드라마는 실생활 속의 어휘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학습자들에게 풍부한 예시를 통해 알게 해 준다.

여섯째, 사회언어학적 능력에서 보면 드라마는 한국의 경어법, 특수한 관용 표현, 문화적 내용 등을 동시에 제시하는 좋은 텍스트다.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는 복잡하며 사회적 신분도 다양하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계층 사람들과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해 본 경험이 부족한 학습자들에게는 드라마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발화 습관과 노동자, 대학생,

11) 박명실(2010:21~25), 논문 요약 정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노인 등 특정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담화 특징 등을 배울 수 있다.

일곱째, 담화적 능력에서 보면 학습자들이 드라마를 통해 담화 주제, 상황의 이해, 적절한 응답 등의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여덟째, 전략적 능력에서 보면 드라마는 한국 사람만의 언어 처리 방식들을 생생하게 제시해 준다. 기본적인 한국어 교실 수업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언어 수행 상의 변인이나 불완전한 언어 능력 때문에 의사소통이 중단되는 경우를 대하는 방법을 중시하지 않거나 심지어 언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중심어 강조하기, 다른 말로 다시 표현하기, 부연 설명하기 등의 능력이 요구되며 얼굴 표정, 제스쳐 등 비언어적인 요소도 적절히 사용하 수 있어야 한다. 드라마는 한국 사람들의 다양한 상황에서의 언어, 비언어 처리 방식들을 생생하게 제시하고 있어 언어교육에 도움이 된다.

3) 드라마의 선정 기준[12)]

첫째, 선정한 드라마의 주제는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해야 하고 학습 내용에 부합해야 한다. 드라마를 수업에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업 계획을 세울 때 학습자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참고하는 것이 좋다.

둘째, 선정한 드라마 속에 사용한 언어들은 학습자의 수준에 맞아야 한다. 교사는 학습 대상자의 수준을 잘 파악하여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운 언어를 사용한 드라마는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전문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의학과 법률 같은 주제의 드라마는 학습자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다.

셋째, 성공적인 듣기 수행을 위해 선정된 드라마는 발화 속도가 적절해야 하며 방언 대신 표준어를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드라마는 한국인의 실생활을 재현하는 것이기 때무에 발화 속도가 빠른 경우가 많다. 시청자들을 웃기려는 의도로 말을 빠르게 하는 시트콤같은 것을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사투리(방언)는 초급과 중급 학습자에게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학습 능동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기에 피해야 한다. 또한, <선덕여왕>, <동이>와 같은 역사극은 주제와 내용 구성은 좋으나 사용하는 언어가 현대어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 듣기 자료로는 부적절하다.

넷째, 드라마의 사건 진행이 쉽게 이해될 수 있어야 하고 과도한 폭력이나 선정적인 내용이 없어야 한다. 폭력적인 장면은 학습자에게 부정적이 장면을 줄 수 있다.

다섯째, 드라마의 길이를 고려해야 한다. 드라마의 방영 시간이 너무 긴 경우, 학습자를

12) 박명실(2010:28~29), 논문 요약 정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쉽게 질리게 만들고 수업이 산만해 질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드라마 속에 나타나는 비언어적인 요소, 문화적인 요소, 등장인물의 연령층 등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Ⅲ. 드라마를 활용한 듣기 수업 지도안 작성

지금까지의 한국어 듣기 교육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듣기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드라마를 활용한 듣기 수업 지도안을 구안하고자 한다.

1. 드라마의 소개 및 선정 이유

1) 드라마의 소개

태양의 후예는, 15세 이상 관람가능한 16부작의 드라마로, 2016.2.24.~2016.4.14..까지 KBS2 TV에서 매주 수목 밤 10시에 1시간 가량 방영된 수목드라마이다.

주인공은 송중기, 송혜교, 진구, 김지원이다. 송중기는 유시진이라는 특전사 대위의 역할을 맡았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얼굴도 잘 생기고 그야말로 완벽한 군인으로 육군 원사로 명예 전역한 아버지를 둔 성품곧은 청년이다. 송혜교는 강모연이라는 정확하고 야무지고 천재적인 실력있는 의사이지만 빽이 없어 번번히 교수임용에서 탈락하고 적자생존의 현실에서 좌절하지만 파병간 의료봉사단에서 송중기를 만나 진정한 의사로 탄생하게 된다. 진구는 서대영이라는, 송중기와 같은 특전사이지만 깡패 출신 흑수저 상사로 송중기의 부하이며, 윤명주를 좋아하지만 시진을 사위로 삼고 싶어하는 윤명주의 아버지(사령관) 때문에 윤명주를 놓아주려하는 인물이다. 윤명주는 사령관의 무남독녀 외동딸로, 군의관으로 첫 부임한 부대에서 대영을 만나 이후 쭉 대영의 곁을 맴도는 캐릭터이다.

초반부에는 남녀 주인공이 썸을 타다 가치관의 차이로 헤어진다. 강모연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살려야 하는 의사, 유시진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사람을 죽여야 하는 특전사(군인)이기 때문이다. 이후 강모연은 생명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의사가 되어 버리고, 유시진은 평화 유지를 위해 중앙 아시아 가상 국가 우르크에 파병되고, 의료봉사차 온 강모연과 재회한다. 현실과 허구가 섞인 이 곳에서 둘은 “조국이 지켜야 할 국민의 인권”이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는 가치를 공유하며 사랑을 키워 나간다. 강모연은 우르크에서의 경험으로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의사로서의 초심을 회복하게 된다.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유시진)과 의사(강모연)가 병원 응급실 등 한국에서, 또 우르크(분쟁국, 지진 재난지역, 국제 갱단이 있는 지역 등)에서 자신의 일을 하면서 연애를 하는 이야기이고, 서대영과 윤명주가 끊임없이 밀당을 하는 러브라인이 주를 이룬다. 마지막은 특수부대에 투입되어 행방불명되어 죽은 줄 알았던 유시진과 서대영이 1년 후 돌아와 연인들과 재회하는 해피엔딩이다. 중간중간 연애의 달달함과 수술, 전투 등의 극적 요소들이 나오고 코믹한 장면과 대사들도 있다.

등장인물의 관계도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선정 이유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드라마', '다시보고 싶은 드라마'를 검색했더니, 최근 방영된 드라마 중에 네티즌들의 추천이 가장 많은 것이 '태양의 후예'와 '도깨비'였다. 두 드라마의 인기는 알고 있었지만, 드라마가 방영될 때 나는 이 두 드라마를 한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었다. 그런데 도깨비는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아, 그나마 더 현실적인, 그리고 아직도 연인들의 마음을 심쿵하게 울리고 있는 '태양의 후예'에 대해 폭풍 검색에 들어갔다. 매회 시청자들이 인터넷에 올린 줄거리와 스틸컷을 보니 대략 내용이 파악되었고 드라마를 본 것과 같은 달달함과 감동이 느껴졌으며 내용이 궁금하고 재미있어서 다음 회차 줄거리를 연이어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KBS TV, 태양의 후예 홈페이지 드라마 뉴스 탭을 클릭했더니, 2016년 12월에 '태양의 후예'가 아시안 텔레비전 어워즈 최우수 드라상을 수상했다는 2016.12.3.일자 인터넷 뉴스가 나와 있었다.[13] 또한 그 인기에 힘입어 태양의 후예 컬러링북·포토 에세이·포토 엽서북·OST 모음집까지 연이어 나왔다.

이처럼 태양의 후예는 국내외적으로 그 인기가 이미 검증되었기에, 한국어 학습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기대하며 볼 수 있는 드라마라고 판단되었고 최근의 것이어서 더욱 마음에 들었다. 사전 제작된만큼 스토리도 탄탄했고, 영상도 아름다웠으며, 특히 등장인물들의 외모가 드라마에 깊이 몰입하게 하여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새겨질 정도였다.

또한, 이 드라마의 기획의도를 봤을 때, 드라마가 지향하는 가치 또한 교육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꿈이 돈으로 통하고, 행복은 성공 순이라고 말하는 현실에서 묵묵히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영웅을 그린 드라마라고 하는데, 우리는 마음 속으로 그런 영웅을 바라고 있기에 어느 나라 학생이든 거부감없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의사로서 인류애적인 휴머니즘과, 군인으로서 나라를 위해 국가에 충성하면서도 휴머니즘을 잃지 않는 주인공들의 마인드가 깔려 있어 공감을 얻기에 좋았다.

듣기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드라마의 등장인물들의 발화 속도 또한 중요한데, 등장

13) http://www.kbs.co.kr/drama/sun/behind/tt/index.html (출처)
뉴스 내용을 자세히 보면, "<태양의 후예>는 2일 싱가포르 썬택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회 아시안 드라마상을 수상했다. 총 16부작으로 방송된 <태양의 후예>는 최고시청률 38.8%를 기록한 것은 물론이고, '태후 신드롬'을 일으키며 방송 기간 내내 숱한 화제를 뿌린 2016년 최고의 화제작이다. 또한 중국에서 동시 방영된 것은 물론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면서 국내의 인기를 넘어 한류 열풍을 되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시안 텔레비전 어워즈는 1996년 시작돼 매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텔레비전 관련 시상식으로 올해 총 41개 부문에 걸쳐 최고상을 시상했다." 고 되어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인물들의 발화 속도도 적절했다. 표준어를 사용했고, 가끔 영어를 쓰기도 해서 자막이 한글말로 나오기도 했지만, 현대 사회의 구어 특징들이 많이 나와서 현 시대의 언어 사용을 반영하기 좋다고 생각되었다. 병원이라는 전문적인 공간과 군대라는 특수 공간으로 인해 전문용어와 특수 용어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스토리의 전개를 중심으로 수업을 이끌어가면 굳이 그 용어들을 정확히 알지 않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었기에 이 드라마를 선정하였다.

2. 드라마를 활용한 듣기 수업 지도안

1) 전개 방식

연구자는 16회의 드라마를 총 200시간(하루 4시간 X 주5일 X 10주 수업)의 수업에서 마스터한다는 생각으로 수업을 진행하려 한다. 그러기 위하여 드라마의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한다기보다 주요 줄거리를 연결해 가며 드라마의 몰입도를 떨어뜨리지는 않으면서도 어려운 부분은 줄거리를 이야기하며 화면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넘어가고 중요한 장면은 대화 내용에 대해 상세히 배우고 연습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확히 말한다면 드라마의 내용을 소개하는 교사의 발화를 듣는 것과 드라마의 내용을 듣는 것을 통하여 듣기 능력이 향상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수업을 마친 후에는 “태양의 후예”를 다 시청했다고 학생들이 자신있게 말할 수 있고, 어떤 내용인지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 감동을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수업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자세히 배우지 않은 장면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시보기를 통해 독학으로 터득해 가면서 한국어 능력이 신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겠다.

먼저 12시간에 걸쳐 60분짜리 드라마 1회를 보기 위하여는 드라마의 한 장면씩 끊어서 시청하여야 한다. 대본을 나누어주고 대본에 나온 장면별로 끊어서 시청할 것이다. 한차시 60분 수업 중에 드라마를 시청하는 시간은 대략 3분에서 8분이 소요된다.

1회차 드라마를 12차시로 나누어 수업에 활용할 때, 시청할 드라마의 시간과 장면은 아래와 같이 나누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차시	시청시간 (분)	대본 장면번호	주요내용
1	8	1~10	비무장지대 씬 (전투장면이 많음)
2	6	11~14, 18~18-2	시진과 대영이 사격장에서 도둑(기범)을 잡고 찻집에서 기범에게 핸드폰 도난당한 것 확인
3	5	19~22	기범이 병원에 오고 빅보스(시진)에게 전화가 옴
4	4	24~26-1	시진 병원에 와서 모연과 만남
5	4	27~28	시진, 대영이 양아치들과 싸워 기범을 구함
6	2	29	명주와 모연이 만남
	1	30	모연이 표닥과 명주에 대해 대화함
7	3	31	명주와 대영 만남, 기범이 다쳐오자 시진을 오해하는 모연
	2	32	로비에서 모연과 시진 투덜대고 시진은 모연이 경찰에 신고못하게 폰 뺏음
8	3	33	명주와 대영이 이야기하고, 명주를 통해 시진과 대영의 신분이 모연에게 확인됨
9	2	34	시진과 모연 단둘이 복도에서 CCTV 확인 기다림
	2	35	응급실에 누워있는 기범과 대영의 대화
10	4	36~38	CCTV 확인하여 모연은 시진에 대한 오해 풀고 모연이 시진의 상처를 치료해 주며 애틋해짐
	2	39~40	특전사 부대 내무반에서 화기애애한 시간
11	2	41	해성병원 진료비 내주는 대영 & 기범
	2	42	해성병원에서 정신없이 바쁜 모연과 바라보는 시진 (대사가 별로 없고 영상 위주임)
	2	44	특전사 부대의 시진과 병원에 있는 모연이 통화
12	4	45~48	해성병원 옥상에서 모연과 시진 만나고 헤어짐
	2	49~50	수송기로 아프가니스탄 가는 특전사 부대원

먼저 시청 전 단계에서는 예고 내용을 보면서 시청할 내용을 예측하게 하고 어휘를 대략적으로 공부한 후에, 주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특히 한국인들의 생각이나 정서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고 관련 표현도 준비시킬 것이다. 또한 간단한 질문으로 드라마 시청 내용 중에 중점을 둘 부분을 알려줄 것이다.

시청 단계에서는 경우에 따라 무음성으로 화면 보기/화면없이 음성만 듣기를 하거나 화면을 보면서 소리 듣기(본격적인 듣기), 반복하여 시청하며 핵심어 찾기, 내용 이야기하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추론하기 등의 활동을 하겠다.

시청 후 단계에서는 제대로 듣고 이해했는지 물어보고, 내용 요약하기를 시키거나 문화적 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나라에서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토론하기, 역할극하기 등의 활동을 하겠다. 줄거리에 대해 ( ) 안을 채우기나 주인공에게 편지쓰기(또는 간단히 문자 보내기) 등의 쓰기로의 연계도 좋겠다.

드라마 시청 시에 동영상 자료에 자막이나 말풍선을 제시하면 좋겠지만 편집능력이 미비하여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캡쳐 화면에 중요 대사를 삽입하여 제공하는 방법을 이용하겠다.

2) 수업 지도안

강의 교재	드라마 <태양의 후예> 시청각 자료(총16회차) + 대본		
학습 대상	중급	차시	6/12 (드라마 1회분을 총 12차시에 걸쳐 수업함)
일시	2017년	교육 시간	60분
전체 학습 목표	- 드라마 시청 후 상황 및 내용을 이해한 후 줄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다. - 드라마에 나온 어휘를 정확히 이해하고 들은 단어 및 표현들을 실생활에서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드라마에 나타난 한국인의 정서가 어떠한지 각자의 나라와 비교할 수 있다. - 상황에 따른 대화 특징 및 비언어적 요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차시 학습 목표	- 드라마에 나온 중요 단어를 듣고 말할 수 있다. - 역할극을 통하여 주인공의 대화를 말할 수 있다. - 오늘 본 드라마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줄거리를 듣고 적을 수 있다)		

단계 (시간)	교수·학습 내용	자료 및 유의점
도입 (5분)	- 지난 시간에 시청한 드라마 장면에 대해 캡쳐 화면을 보며 교사가 퀴즈를 낸다.(복습)	드라마 캡쳐 화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T : 이 화면은 지난 시간에 본 드라마 장면이에요. 누가 쓰러져 있나요? S : 기범이요. T : 시진과 대영 이외에 빙 둘러서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S : 양아치들이요. T : 맞아요. 양아치들이에요. 양아치들 말고 기범이 친구도 한명 있어요. 그런데 기범이는 왜 쓰러져 있나요? S : 양아치들에게 맞아서요. / 양아치들이 때렸어요. T : 양아치들이 왜 기범이를 때렸나요? S : ... T : 동영상에서 기범이의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범이가 써클 탈퇴한다 그러니까 탈퇴비 내고 가야 한다고 해서요” 탈퇴비 내라고 때린 거예요. 그럼 탈퇴비는 얼마였나요? S : 오백만원이요. T : 맞아요. 모두들 잘 듣고 이해했군요. - 교사는 오늘 시청할 동영상의 캡쳐 화면을 보여주고 어떤 내용일지 질문한다. 〈화면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T : 캡쳐 화면을 보세요. 군복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쓴 여자는 누구일까요?

S : 윤명주?

T : 맞아요. 첫 수업시간에 등장인물 소개할 때 말했던 윤명주예요. 그런데 왜 윤명주라고 생각했나요?

S : 간호사와 명주가 통화했어요.

T : 맞아요. 명주는 핸드폰 주인이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 대영이 다친 줄 알고 병원에 왔어요.

<화면2>

T : 이 화면은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둘은 직업이 뭐예요?

S : 둘 다 의사예요.

T : 어떻게 알았어요?

S : 의사 가운을 입고 있어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T : 그런데 저 의사는 의자가 특이해요. 어디에 앉아 있나요? S : 휠체어예요. T : 맞아요. 휠체어를 타야 하는 의사인가 봐요.	
전개1 (30분)	T : 오늘은 방금 본 두 화면의 드라마 내용을 시청할 거예요. 잘 들어 보세요. 먼저 모연과 명주와 최민지 간호사 셋이 있는 장면이에요. <대본의 장면29 시청 및 시청 후 대본을 나눠줌> T : 여기에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생각나는대로 하나씩 말해 보세요. S : 오토바이, 환자, 보호자, 선배, 담당의, 차트, 담당의, 수납, 보안팀, 화장실, 치료, 도리... T : 모르는 말들이 나왔나요? 누가 언제 말한 것이 어려웠나요? S : ... T : 대본을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줄께요. 여기서 모르거나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으면 동그라미 치세요. (대본을 읽으며 단어나 표현의 의미와 말한 의도 등에 대해 설명해 줌, 학생들이 동그라미친 단어에 대해서는 다른 사용예를 들어가며 더 구체적으로 설명함) T : "선배랑 농담 따먹을 시간 없습니다.", "돈도 안 내고 튄 거 같거든?", "치료받기 싫다는 환자 두 번까지 잡아뒀으면 병원이 할 도린 다 했다고 본다."의 표현은 외워 보도록 할께요. 외우면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10번씩 따라해 봅시다. (반복 후, 한 사람씩 말하게 함) T : 자, 이제 대본을 함께 읽어 봅시다. 여러분이 명주예요. 자기가 읽을 부분에만 집중하지 말고, 선생님이 읽는 모연의 말도 잘 들어야 해요. 시작! (끝나면, 역할을 바꿔 대본을 읽음, 이때 학생들의 발음이 이상한 것은 교정해 줌) T : 어때요? 이제 무슨 대화인지 이해했나요? 이제 대본을 보지 않고 드라마를 다시 볼 거예요. 처음보다는 잘 들을 수 있겠죠? <대본의 장면29 재시청(한국어 자막 없는 것, 있는 것 2가지)> T : 모연과 명주 중에 누가 나이가 더 많아요? S : 모연이요. T : 몇 살 더 많아요?	드라마 동영상, 대본, 괄호넣기 지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S : 몰라요. T : 그런데 어떻게 나이가 더 많은지 알았어요? S : 명주가 모연에게 선배라고 했어요. T : 맞아요. 수잔과 티엔은 조선대학교에 다녀요. 마고는 대학교 1학년이고, 티엔은 3학년이에요. 그러면 티엔은 마고의 선배, 후배? S : 선배예요. T : 맞아요. 그럼, 마고는 티엔의? S : 후배예요. T : 맞아요. 그런데, 나 41살 4학년. 대승씨는 50살 2학년. 대승씨는 내 후배지만 나이가 많아요. 선배라고 꼭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니에요. S : 모연이 명주에게 반말을 해요. T : 맞아요. 모연이 명주에게 반말을 하고, 명주는 모연에게 높임말을 해요. 그러니 모연이 나이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후배에게 반말을 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나이가 매우 중요해요. T : 오늘 본 드라마의 내용을 선생님이 요약해 볼께요. 선생님이 읽는 말을 잘 듣고 괄호를 채워 보세요. 「오토바이 환자의 (보호자)로 명주가 왔다. 그런데 명주는 모연을 보고 (선배)라고 했다. 모연이 명주에게, 우리 사이에 (남자)가 하나 껴 있어야 만나진다고 하자 명주는 (선배)랑 (농담 따먹을 시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명주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모연은, 민지에게 환자의 (진료비 수납)은 꼭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를 두 번까지 잡아뒀으면 (병원이 할 도리는 다 했다)고 합니다.」 T : (학생들의 과제 수행을 보며) 잘했어요! 이번에는 드라마의 두 번째 장면을 시청하겠어요. <대본의 장면30 시청 및 시청 후 대본을 나눠줌> T : 잘 들었나요? 이번 장면에는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병원에서 쓰는 말은 지난 시간에 배워서 알아들었죠? 어떤 말이 나왔나요? S : 응급실, 인턴, 짝사랑이요. T : 대박이란 말 알아요? 모연이 표닥에게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기 전에 “대박”이라고 말했어요. “대박 사건이야.”를 의미해요. “나 어제 짜장면 세그릇 한번에 다 먹었어.”했을 때도, “대박”이라고 해요. “대단하다”, “놀랍다”라는 뜻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대~박!” “나 복권 당첨되었어.” “대박”, “세상에, 에이미가 마고랑 결혼한대.” “대박” T : 육사는 육군사관학교를 말해요. 얼짱은 얼굴이 예쁜 사람을 말하죠? 에이미는 얼짱이에요. 탄두는 얼짱이에요, 아니에요? S : 얼짱이에요. T : 음. 글쎄요. 하하하. 싸가지는 ‘싸가지 없다’를 말해요. 한국에서는 말을 짧게 말해요. 대본에서는 표닥터, 즉 표씨 성을 가진 의사선생님을 표닥이라고 했어요. (인터넷 강의->인강, 김변호사->김변, 열심히 공부하다->열공, 비밀번호->비번, 남자친구->남친 등 줄임말의 예시를 많이 들어줌, 또한 줄이기 전 말을 넣어 문장을 말해주고, 줄임말로 바꿔 똑같은 문장을 말해 줌) T : 군대 용어도 많이 나왔어요. 육군 사관학교를 나오면 장교가 돼요. 장교의 반대는 사병이에요. 사병은 장교가 될 수 없어요. 하사, 중사, 상사를 부사관이라고 하는데, 부사관은 사병이에요. 절대 장교가 될 수 없어요. 장교가 돼야 장군이 될 수 있어요. 군의관은 군대에서 의사 일을 하는 장교를 말해요. 검정고시는 학교를 안 다니고 시험에 합격하면 학교 다닌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명주는 군의관, 즉 군대의사 장교, 명주 아빠는 장군, 즉 장교. 명주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한 대영은 검정고시, 부사관, 사병, 절대 장교가 될 수 없어요. 명주는 금수저, 대영은 흑수저. 그러니 명주 아빠가 대영을 반대해요. 여러분은 금수저예요, 흑수저예요? S : 금수저가 되고 싶은 흑수저예요. 하하하! T : 자, 그럼, 대본을 읽어 봅시다. (대본을 읽으며 단어나 표현의 의미와 말한 의도 등에 대해 설명해 줌) 표닥이 모연에게, 군대 계급 중에 하사 중사 상사 그런 거 있잖아 이년아 했어요. 이년아는 욕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친한 사이에 편하게 욕을 해요. 하지만 상대방이 기분나빠하면 친한 사이여도 욕하면 안 돼요. 모연과 표닥은 반말하고 친해요. 선배인 것 같아요? S : 아니요. 친구인 것 같아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T : 자, 이제 대본을 함께 읽어 봅시다. 재미있는 표현이 많아요. 주인공처럼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모연이예요. 자기가 읽을 부분에만 집중하지 말고, 선생님이 읽는 표닥의 말도 잘 들어야 해요. 시작! (끝나면, 역할을 바꿔 대본을 읽음, 이때 학생들의 발음이 이상한 것은 교정해 줌) T : 어때요? 이제 무슨 대화인지 이해했나요? 이제 대본을 보지 않고 드라마를 다시 볼 거예요. 처음보다는 잘 들을 수 있겠죠? <대본의 장면30 재시청(한국어 자막 없는 것, 있는 것 2가지)> T : 방금 본 드라마의 내용을 선생님이 요약해 볼께요. 선생님이 읽는 말을 잘 듣고 괄호를 채워 보세요. 「모연이, 지금 응급실에 윤명주가 와 있다고 (대박)이라고 했어요. 표닥은 윤명주를, 아빠가 (장군)이고 (육사)출신 (얼짱) (군의관)이라고 했어요. 모연은 윤명주를 얼짱 아니고 (화장발)에 (싸가지)라고 했어요. 윤명주의 남친이 어리고 다쳤다고 하자, 표닥은 윤명주의 남친에 대해 알려줘요. 윤명주의 남친은 (군인)이고 (부사관)이고 (검정고시) 출신이고 윤명주 러브 스토리 유명하다고. 그러자 모연은 (핸드폰) 맡기고 (튄 사람)은 누구인지 궁금해해요.」 T : (학생들의 과제 수행을 보며) 잘했어요!	
전개2 (10분)	둘 또는 셋이 짝을 이뤄, 등장인물들의 인물사진카드를 섞어 놓고 한명씩 뽑아서 그 인물에 해당하는 역할극을 수행한다.	인물사진 카드
정리 (5분)	· 정리 : 오늘 들은 주요 표현을 선생님이 들려주면 듣고 따라 말하게 한다. · 과제 : ‘농담 따먹다, 튀다, ~으면, 할 도리는 다 했다’의 표현으로 묻고 답하는 대화 문장을 5개씩 만들어 오기 · 다음 차시 예고 : 다음 차시 드라마 캡쳐 화면 보여주고 핵심단어 “오해” 임을 알려줌	드라마 캡쳐 화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태양의 후예 1회차 6차시 대본

S#29. 해성병원/ 응급실 (밤)
(모연, 정신없이 다른 환자 보고 있는데, 민지 다가와서)
민지 : (혼날까봐) 오토바이 환자 아무래도 또 튄 거 같아요. 보호자 오셨는데..
모연 : 또? 보호자 어디 계신데?
(민지, 빈 베드 쪽 가리키면, 군복차림의 명주, 딱 서 있다)
모연 : (다가가며) 윤명..주
명주 : 강모연.. 선배
모연 : 후배가 이 환자 보호자야?
명주 : 담당의가 선뱁니까? 환자 어딨습니까? 일단 차트부터 줘보십시오.
모연 : 남의 병원 와서 남의 환자 차트를 니가 왜 봐? 어째 우린 사이에 남자가 하나 껴 있어야 만나진다.
명주 : 선배랑 농담 따먹을 시간 없습니다. 차트나 빨리 주십시오. 나한테 중요한 사람입니다.
모연 : 중요한 사람?
명주 : 많이 다친 겁니까? 담당의가 어떻게 환자가 사라진 것도 모릅니까? 어디 간 겁니까, 환자?
모연 : 내가 묻고 싶다 내가. 아무래도 너한테 중요한 그 환자분이 돈도 안내고 튄 거 같거든? 그러니까 온 김에 니가 수납이나 좀 대신하고 갈래? (민지 보며) 보안팀에 얘기해서 남자화장실이랑 한번 찾아보구요, 못 찾아도 여기 보호자님께 진료비 수납은 꼭 받으세요. (가는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명주 : 그냥 가면 어떡합니까!
모연 : 여기 최선생님하고 얘기해. 치료받기 싫다는 환자 두 번까지 잡아뒀으면 병원이 할 도린 다 했다고 본다. 난 바빠서 이만. (완전 가버린다)
명주 : (가는 모연 바라보다 민지에게) 남자화장실이 어디죠?
민지 : (가리키며) 저기
(명주, 말 끝나기도 전에 이미 달려가고)

S#30. 해성병원/ 진단방사선과 판독실 (밤)
모연 : 야, 대박! 지금 응급실에 윤명주 와 있어.
(표닥의 근무처이고 표닥은 휠체어를 탄다.)
표닥 : (모니터의 엑스레이 사진 확인하며 무심하게) 윤명주? 육사출신 윤명주?
모연 : 그래. 육사에서 위탁교육인가 뭔가 우리랑 인턴 같이 했던 그 싸가지.
표닥 : 그니까, 니 짝사랑 선배 뺏어간 그 얼짱 군의관 윤명주?
모연 : 야, 누가 얼짱이야 누가! 눈 좀 크면 얼짱이야? 코 좀 높음 얼짱이야? 얼굴 있음 다 얼짱이야? 걔 그거 다 화장발이야.
표닥 : 지워도 이쁘더라.
모연 : 지워도 이쁘, 그 때 그 선배 윤명주랑 사귄 거 아니거든!
표닥 : 과거사 해석문제는 그렇다 치고. 응급실엔 왜, 다쳤어?
모연 : 아니, 걔 애인이 다쳤어. 근데, 걔 애인 나이가 암만 많아야 스물이야. 걔 미친 거 아니니?
표닥 : 뭔 소리야. 야, 명주 남친 군인이야.
모연 : 뭔 군인이야. 걔 머리 길어.
표닥 : 군인 맞어. 걔네 동기들 사이에서 완전 유명해, 윤명주 러브 스토리.
명주 : 애인이 부사관이잖아.
모연 : 부사관? 그건 뭔데?
표닥 : 군대 계급 중에 하사 중사 상사 그런 거 있잖아 이년아.
모연 : 야, 그런 거 아는 니가 이상한 거지 내가 이상하냐?
표닥 : 암튼, 명주 애인이 상산가 그런데, 검정고시 출신이야. 근데 명주는 육사출신 장교에, 그것도 군의관에, 아빠는 별 세 개 장군에, 둘 사이가 우아할 리가 있겠냐?
모연 : 그래? 그럼 핸드폰 맡기고 튄 걘 뭐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Ⅳ. 결론

듣기는 '듣는 이(청자)가 말하는 이(화자)로부터 음성 언어를 매개로 하여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을 말한다. 외국어 교육에서 듣기는 1970년대 후반 이후 중요성이 부각되었는데, 최근에 이루어지는 듣기의 연구는 대부분 의사소통 접근법에 기반하고 있다.

듣기는,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빈도의 비중이 높으며, 말하기의 선행단계로 듣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습이 시작될 수 없다. 그리고 음성 언어가 갖는 순간적, 일회적 특성 때문에 듣기 능력의 신장이 중요하다. 또한 듣기는 다른 기능으로의 전이가 빠르다. 즉, 듣기를 통해 말하기를 모방하여 말하기 연습이 가능하고, 듣기를 하며 쓰기를 하게 되면 듣기에 주의 집중을 하게 될 뿐 아니라 다양한 표현과 형태를 받아 적음으로써 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듣기를 통해 형성된 이해 능력은 이해 영역인 읽기에도 도움이 된다. 이처럼 듣기는 언어 생활에서 기본이 되며 의사소통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연구자는,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배우는 학생들이 쉽고 편안하며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한국어 듣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또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어떻게 미디어를 활용하여 듣기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접목하여 효율적인 한국어 듣기 수업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듣기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여 듣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고, 듣기 교육의 원리, 듣기 활동의 원리, 듣기 자료의 구성 원리, 듣기 내용의 구성 원리를 토대로 듣기 전, 듣기 중, 듣기 후의 실제적 활동 유형을 살펴보았다.

이후 언어교육에서 미디어의 활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언어 교육에서 미디어를 활용하게 되면, 소리와 영상을 동시에 보고 들으면서 언어 기능을 학습할 수 있어 학습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는 데 유리하며 현실 생활과 유사한 상황의 장면을 통하여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실제 상황에서 언어를 배운다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고, 교실에서의 수업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커뮤니티나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다각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의사 소통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어 유용하다. 그러나 수업의 목적과 내용에 맞게, 학습자들의 수준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하며,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매체여야 하며, 유의미한 상호작용 활동을 하는 데 활용해야 하며, 문법적으로 올바른 한국어가 사용되는 동영상이나 자료 화면을 사용해야 하는 유의점이 있다.

언어 교육 자료로서 드라마는 많은 교육적 가치가 있다. 먼저 드라마는 실제적인 언어 사용을 접하는 기회를 주고 문법적인 면에서 문어와 다른 구어 텍스트를 제공함으로써 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아있는 언어를 경험하게 하며, 화자의 억양, 발화 속도, 감정에 따른 언어 사용의 차이까지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한다. 또한 몸짓,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하며, 실제 사회 문화를 비롯해서 풍습, 종교, 사회 제도 등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드라마는 출연 배우, 흥미진진한 이야기 전개, 화면과 어울리는 배경 음악을 통해서도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지속시켜 수업에 집중하게 도와주기도 한다. 문법적 능력에서 보면 드라마는 정확한 발음, 어휘의 의미 파악 및 사용, 자연스러운 억양 학습에 유용한 학습 자료가 되며, 실생활 속의 어휘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학습자들에게 풍부한 예시를 통해 알게 해 준다. 사회언어적 능력에서 보면 드라마는 한국의 경어법, 특수한 관용 표현, 문화적 내용 등을 동시에 제시하는 좋은 텍스트다. 담화적 능력에서 보면 학습자들은 드라마를 통해 담화 주제, 상황의 이해, 적절한 응답 등의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전략적 능력에서 보면 드라마는 한국 사람만의 언어 처리 방식들을 생생하게 제시해 준다.

이처럼 교육적 가치가 높은 드라마를 수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좋은 드라마를 선정해야 하는데, 먼저 선정한 드라마는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 내용에 부합해야 하며, 드라마 속의 언어들이 학습자의 수준에 맞아야 하며, 발화속도가 적절하고 표준어를 사용한 것이어야 하며, 사건 진행이 쉽게 이해될 수 있어야 하고 과도한 폭력이나 선정적인 내용이 없어야 하고, 길이 또한 적절해야 한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연구자는 최종적으로 미디어 중 드라마를 활용한 듣기 교육 방법을 수업 지도안으로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태양의 후예>를 선정하여 드라마 한편을 보는 방안으로 수업을 구성해 나갔다.

1시간 수업 중에 평균 3분~8분짜리 드라마 일부를 시청함으로써 <태양의 후예> 전편을 수업 시간에 마스터하는 것을 목표로 수업을 구성하였다. 동영상 자료는 한국어 자막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가지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한국어 자막없이 화면만 나오게 했고, 학생들이 더 잘 듣고 또한 읽기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한국어 자막을 삽입한 동영상도 필요에 따라 시청하도록 구성한 것이다. 이 수업 지도안이 듣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수업을 해 보고 듣기 능력 향상도를 평가해 보는 기회가 오면 좋을 것 같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고문헌

강현화 외(2009), 한국어 이해교육론, 형설출판사
양명희 외(2011), 한국어 듣기교육론, 신구문화사
우형식 외(2011), 현장 중심의 한국어 교수법, (주)한글파크

이미혜(2011), 드라마를 활용한 듣기 중심의 한국어 수업 구성-수업 모형과 비디오 클립 제작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Vol.36 No.-, 189-216(28쪽)
이해영(1999), 한국어 듣기 교육의 원리와 수업 구성, 국제한국어교육학회, Vol.10 No.1 ,241-263(23쪽)
정용주(1996), 초등영어교육에서의 듣기지도, Primary English Education, No.2.

김윤선(2010),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듣기·말하기 교육 방안 연구 -중급학습자를 대상으로-, 선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朴明實(2010),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방법 연구 -듣기-말하기 교육을 중심으로,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지혜(2009), 영화를 활용한 한국어 듣기 교육 방법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경화(2011), 영상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듣기 교육 연구, 우석대학교 경영행정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sher,J.(1977), Learning another language through actions: The complete teacher's guidebook, Los Gatos, CA: Sky Oaks Productions.
Brown, Steven(2006). Teaching Listeni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Krashen, S. & Terrell, T.(1983), The Ntural Approach:Language acquisition in the classroom, Oxford: Pergamon Press.
Lund, Randall(1990). A Taxonomy for Teaching Second Language Listening, Foreign Language Annals,23, No.2.
Morley, J.(1991), Listening Comprehension in Second/Foreign Language Instruction, In Celce-Murcia, M.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2nd. ed.), MA: Heinle & Heinle Publisher.
Underwood, M.(1989). Reading in a Second Language: Process, product and practice. New York: Longman.

Collection @ chosun